

2면 인터뷰 / 문정호 · 안준호 대우조선도장분회장

3면 독자 투고 / 믹스커피 한 잔

4면 노동안전 칼럼 /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조선하청노동자

5면 전국 소식 / 부산, 서울, 시흥 · 안산, 대구, 해남, 광주

6면 바지락 만화 /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7면 실전 노동법 /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8면 우리네 맛집 / 안산 다원식당 / QR코드 활용 꿀팁



바지락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1년 8·9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바지락을 네는 사람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 네거리, 법화농공단지, 맹동·생극산업단지, 원남·대소산업단지, 세종시 보쉬전장 앞, 목행산업단지, 서충주산업단지, 연수 주공1단지 앞, 청주 3~4공단 솔밭공원 사거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 번쩍, 세종에 번쩍, 충북에 번쩍, 바지락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드릴 <바지락>, 마스크, 권리 찾기 안내수첩, '임금명세서 제대로' 홍보물을 빨간 가방에 가득 담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지만, 선물 보따리처럼 풍성한 가방을 메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뿌듯합니다. 대전·충북 공단노동자와 함께하는 우리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투쟁 과정에서 결성한 대우조선도장분회 두 분회장을 만나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도장분회의 두 분회장을 만났다. 왼쪽이 문정호 1분회장, 오른쪽이 안준호 2분회장.

올해 3~4월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도장업체 파워공과 도장노동자 400여 명이 투쟁을 벌였다. 이번 투쟁이 이전과 다른 점은 투쟁 과정에서 도장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단체가입해 '대우조선도장분회'를 결성한 점이다. 문정호 1분회장과 안준호 2분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바지락(이하 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정호(이하 문)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도장분회 1분회장 문정호라고 합니다. 파워그라인더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안준호(이하 안) 안녕하세요. 저는 2분회장 안준호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한 지 올해로 만 16년입니다. 주로 거제, 통영 쪽에서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짐

바 네, 반갑습니다. 노동조합 분회를 설립하고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안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고, 첫 교섭이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도 여러 건 적발하고 있습니다.

문 투쟁 과정에서 지회 덕분에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하면 조합원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안 교육을 받으면 여태껏 본인이 뺏기는지 몰랐던 것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권리의식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 회사는 관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며 회사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바 그렇군요. 대우조선도장분회 결성 계기가 파워공 투쟁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문 저희가 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이대로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임금도 많이 삭감돼서 임금을 올리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투쟁하다 보니 ‘임금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전에 누리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되찾으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안 파워공들은 수년간 여러 차례 작업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수차례 투쟁하면서 반복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회사별로 말을 바꾼다거나,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계속 압박하거나요. 2019년 투쟁도 우리끼리는 성



공했다고 현장에 돌아갔지만, 이후 2년 동안 더 악조건으로 빠져들었어요. 이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노동조합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들 동의했고, 2021년 파워공 투쟁에서 노동조합 집단가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바 이런 맥락에서 올해 파워공 투쟁은 더욱 남다르셨을 듯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문 여러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만 꼽자면, 파워공들이 투쟁하고 있는 대우조선 서문을 경비들과 원청 총무과 직원들이 막고 있었어요. 지회장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깃발을 들고 진입하려는데 깃발을 뺏으려고 경비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라고요. 파워공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머뭇거리다 순간 너, 나 할 것 없이 붙었습니다. 깃발을 뺏기면 우리의 상징을 뺏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 맞아요. 파워공 대오가 몸싸움하며 감싸다시피 깃발과 지회장을 보호해서, 지회장 동지가 무사히 들어왔어요. 정신이 쏙 빠졌다가 대오를 정비해서 열을 맞춰 공장 안으로 돌아가는데, 저 안쪽에서 지회장이 깃발을 힘차게 흔들면서 우리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때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요즘도 힘들 땀 그 영상 다시 보곤 합니다.

또 기억나는 장면은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노숙 농성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을 듣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같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랜 파워공 투쟁 경험 중에서도 그런 각오와 단결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 그랬기에 투쟁을 잘 마무리하고, 분회 결성까지 탄탄히 이어진 듯합니다. 노동조합 분회를 결성해보니 어떠신가요?

문 저도 처음에 노동조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막상 활동해보니, ‘아, 사람 인식을 바꾸는 게 참 힘들구나’, 라고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연하겠죠. 저는 다른 큰 뜻은 없어요. 파워공 속성이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라는 게 큼니다. 옮겨 다니지 않고 마음 편히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안 맞아요. 우리 분회가 벌이는 교섭을 잘 마치면, 다른 하청노동자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고, 노조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서 조합가입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책임을 느끼고요. 우리 도장분회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취지 자체가 산별노조기 때문에 지금은 도장분회지만 차후에 다른 분야, 다른 부서까지 확대하면 그때 도장분회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워공 투쟁, 파워공 투쟁이라고 하는데 파워공이 선봉

에 서서 투쟁을 시작한 건 맞지만 투쟁 속에서 확산해서 스프레이, 터치업 등 도장공 전체가 함께하며 '도장분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더 많은 조선휘청노동자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지락>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 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이 있는데 조선휘청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조 가입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만 잘 알고, 조합이 진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탄탄해질수록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권리행사도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혼자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을 생각해봤자 우리를 감싸는 불안감의 껍데기를 깰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에 단결권이 있다는 인식이, 노조에 관한 관심과 함께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문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파워는 오로지 자존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직업의 자부심을 품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의 많은

조선휘청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투쟁에 이어 새로운 걸음을 위한 디딤돌을 탄탄히 만들고 계신 두 분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힘찬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파워공은 전동그라인더로 선박 도장 작업(페인트 칠) 전에 페인트가 철판 표면에 고루 묻도록 철판에 스펀지·이물질 제거하거나, 용접부의 흔적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노동자입니다.

※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전화로 각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함께 인터뷰한 것처럼 편집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상담
1811-9509

[독자투고] 믹스커피 한 잔



아침에 출근하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찾는다.

믹스커피 한 봉을 입으로 찢고는 무심한 듯 컵에 툭 털고 휘휘 젓는다.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불문율이고,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종교 행사와 같다. 달짝지근한 믹스커피 한 잔을 목에 축여야 비로소 고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장 동료와 관리자 뒷담화를 토해낼 때도 믹스커피처럼 훌륭한 반찬이 또 없다. 믹스커피 한 잔을 넘기고 “후”하고 불어대는 담배 연기로 또 하루를 마감한다. 그러니 이걸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마약이다.

최근 들어 현장에 일거리가 줄었다. 잔업거리도 진작 없어졌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좀 수월해져야 하는데 더 무겁고 힘에 부친다.

그러니, 다시 믹스커피 한 잔 목에 축이고 콘베이어벨트 돌아가는 작업장으로 간다.

- 세종부강일반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조용희

<바지락> 독자 여러분이 공감할 듯합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달달하다가도, 살짝 씹씹하기도 하고, 텁텁하다가도 목구멍으로 뜨거운 게 꿀꺽 넘어가고 나면 속이 짜릿한 게, 우리네 삶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동료들이랑 수다 떨며 마셔야 또 제맛이기도 하고요. 좋은 글과 사진 고맙습니다.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세요. 투고한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원고의 독자께 8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 방법 liandai21@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세계 최고 조선 강국’에서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조선하청노동자

[노동안전 칼럼] 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조선소 근처 정형외과에 환자들이 가득한데 일하다 다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환자만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게 아직도 얼마나 복잡하고 눈치 보이는 일인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구마 백 개 먹은 기분입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최근 언론이 자주 보도하고, 원·하청 구조, 위험의 외주화 같은 말들이 판박이처럼 나옵니다. 위험한 일이 문제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원인은 ‘스케줄’입니다. 원청이 위험한 일을, 적은 인원으로, 빨리 마치도록 공기를 짜고, 그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도록,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청이 200명이 필요한 일에 120명의 인건비만 주면, 하청업체는 일을 빨리 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청회사는 ‘안전설비 다 하고 작업하라’라고 말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감독을 다니지만, 원청이 애초에 하청업체가 스케줄 압박에 쫓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청 안전관리자가 오면 아예 작업을 멈췄다가 일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청업체는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기록에 남지 않는 ‘물량팀’이라는 재하청노동자들을 써서 공기를 맞추는데, 물량팀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용보험도 없고, 산재보험도 없어 해고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고용은 하지만 책임질 필요는 없는, 유령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를 보면 조선소 하청보다 원청사에서 산재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집계돼 있습니다. 실제 거제의 대형 조선소 두 곳에서 일어난 산재를 비교해봤더니, 원청의 산재사고가 하청의 산재사고보다 3배~4배 많습니다. 2019년 삼성중공업 원청에서 118건의 사고가 날 때, 하청에서 30건의 사고가 났다고 노동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2배나 많고, 통상 하청노동자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원인은 ‘스케줄’입니다. 원청이 위험한 일을, 적은 인원으로, 빨리 마치도록 공기를 짜고, 그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도록,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료사진)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노동부에 보고 들어가고, 감독 나오고, 보험료가 오르니 회사는 산재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데 있죠. 오죽하면 산재보험 처리하고 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 소문이 노골적으로 떠돌고 있겠습니까.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은 사장과 다시는 안 보거나 해고당할 사람들이라고도 하고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적게 책정하며 스케줄을 압박하니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는 공상으로 처리해서 정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원청회사의 산재가 줄었습니다. ‘산재가 덜 일어난’ 원청대기업은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마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제일 큰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305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972년 회사 문을 연 이후 47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해마다 9~10명이 사고로,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에 2016년부터 네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나갔다고 합니다. 작은 현장에도 근로감독을 나가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제대로 안 하니 행정력과 세금까지 뺏아들입니다. 결국, 원청대기업이 이익을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 감독까지 하게 만들고 하청노동자들은 다치고 아프면서 산재보험도 신청 못 하는 지독한 불평등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조선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의 특별안전관리점검에 원청 노동자(현대중공업 노조)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를 일터를 점검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전수경 _ <노동건강연대>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 소식] 부산, 서울, 시흥·안산, 대구, 해남, 광주

부산양산지부 동부산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립 촉구 기자회견



50명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인 동부산권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중금속이나 분진에 일상으로 노출되지만,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가족들까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산권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설립을 요구합니다.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공단 선전전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와 서울 남부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는 '중소 사업장에 백신휴가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엽서쓰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정말 많은 노동자,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에 조합가입 선전물 배포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됐다는 기본 소식을 전합니다. 전국의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노동조합 가입 선전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시흥안산지역지회 공단 선전전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안산역, 정왕역, 원시역, 중앙역에서 월 1회 공단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월·시화 노동자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대구지부 공단 선전전



대구지부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공단역, 대곡역, 성서공단역, 계명대역, 영남대 벤처창업관 앞 등에서 거점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디다, 디."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선전전



전남조선하청지회는 해남 대한조선 앞에서 선전물과 조합 가입 홍보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한조선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 원인 규명 선전전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 앞 기자회견



광주전남지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 19 백신 유급휴가, 빨간 날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광주시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LG 케어솔루션 매니저야.

안녕하세요!

LG전자 렌탈가전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정기점검·소모품 교체같은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있지.

전국 4,700여명 정도 되는 매니저들의 대부분이 나와 같은 4-50대 중년 여성이야.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 속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고자 이 일을 찾는 사람이 많아.

나 역시 자유롭게 시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더라구.

교육, 미팅, 전화로 고객 약속을 잡고, 대기하고, 때론 고객 사정으로 헛걸음을 하기도 하지.

저어..고객님 케어모뎀 충전입니다

아이고! 내 정년공반 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당 수수료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황은 모두 무급, 무료 노동이야.

또 제품마다 점검 시간이 정해져있어. 매니저들은 점검 시작과 끝에 큐알을 찍어 소요 시간을 기록해야하지. 회사는 이걸 주시하고, 지적하는거야.

야는 10분

야는 15분만에 케어 마쳐야 함

헌데 이 소요시간은 실제 현장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서 고객 집과 제품의 상태에 따라 초과노동이 만연해.

이정도 오면이면 심분만에 절대 안되나지

일을 마치면 따르릉 업무 지시 전화가 오지. 고객님 점검 끝났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매우만족' 부탁드립니다.

(회사) 그 고객 다음달이 만기인데, 재계약 유도한 다음 저한테 보고하세요.

놀라운 점은, 이렇게 회사가 시키는 건 다 해야하지만 우리는 직원이 아니란 거야.

아하 넵 넵

매니저는 특수고용 노동자. 즉, 연차,연장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단 거지.

이동은 자가용으로 해야하지만 식대는 고사하고 주유비 지원도 없고

작업 소모품을 차나 집에 쌓아두느라 자가용임에도 탈 자리는 운전석밖에 없지.

이런 고민과 불만을 각자의 집으로만 가져가던 어느 날...

매니저들의 불만이 한 데 모이는 사건이 생겼어. LG전자정수기 곰팡이 논란이 크게 일자, 그 후속조치인 단열재 교체를 매니저들이 떠안게 된 거지.

영상 하나 던져주고 그대로 하라고...?

완전 분해 후 재조립 하라는 거네. 우리 일은 유지보수 라며!?

꼴랑 건당 3천원? 수리기사님한테는 건당 2만 5천원 주고 시킬 일을...

열받은 매니저들이 밴드를 찾아 일주일 새 1,700명이 가입했어.

여기에 더해, LG전자 렌탈매출이 1조 육박하게 급성장하는 동안 정작 일하는 우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에 대한 불만들이 와르르 터져나왔지.

...건당 만원으로 하자! 어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냐

2020년 5월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노동조합은 우리 일터의 많은 부분을 바꿨어.

동료와 경쟁시키고 점수 매기던 등급제, 인격모독도 일삼던 영업 압박, 또 무릎 꿇은 굴욕적인 자세가 강제됐던 A9케어샵. 이 모두를 우리가 폐지시켰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행복해야 고객도 만족합니다!

LG 하이케어솔루션은 매니저의 생명과 건강 보장하기

노동조합 인정하고 고객에 나와라

지금은 쟁의권을 얻고 투쟁중이야.

그간 각자 일하며 서로의 처지를 돌아 볼 기회가 없던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소중한 공간에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

살림하다 남는 시간에 하면 되는 일이니 편하겠나 뭐라나...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열받아

웃기시네. 이게 얼마나 힘든데. 또, 매니저 중에 가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해? 난 여기서 악착같이 버틸 거야. 노동조합 해서 끝까지 지킬거야!

일터와 일상을 바꿔나가는 싸움! LG케어솔루션 동지들이 있어 든든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중요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내용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1 1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50명 미만 사업장 1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1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1주의 노동시간 상한은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 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한 최대 52시간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노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소정노동일 가운데 휴가, 휴일 등노동하지 못한 시간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노동시간에서 제외하는 휴게시간, 휴가 등의 사유를 늘리거나 새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문서 합의 등 통해 특별연장노동 가능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노동시간 최대 52시간에 **추가연장노동시간 최대 8시간을 더해 6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추가연장근무를 시키려면 ① 근로자대표와 문서로 합의문을 작성해야 하며, ② 추가연장기간(2022. 12. 31.까지) 내에서 ③ 추가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사유, 기간, 노동자 범위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대표자를 말합니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노동자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시행하거나, 합의 강요를 예상합니다. 사업주가 추가연장노동 사유, 기간, 범위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해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할 거로 보입니다.

합의 없는 추가연장노동은 불법입니다. **과반수 조직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므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정방식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사업주의 개입으로 사업주 편에 서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모든 사업장 사업주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기존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작성, 비치 의무만 있었습니다. 노동자 임금체불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임금의 내용이나



산정방식 등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명세서서를 주기도 했지만, 형식에 그쳤습니다.

신설 규정은 **모든 사업장**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명세별 금액 등 개인의 임금 관련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개별 노동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임금에 관한 근거자료 확보가 쉬워질 듯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관련 분쟁에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임금 항목이나 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꼼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하반기 변경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거로 예상합니다.

노동자 개인의 대응이 중요하나, 개인이 사업주와 맞서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첫걸음입니다. 노조를 통해 조직·집단으로 대응해야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상담 : 1811-9509

식당 밥이라고 얽잡아 보지마

[우리네 맛집] 함바집 끝판왕 '다원식당'

“밥 먹고 가. 여기 밥 맛있어.”
지역지회를 찾은 조합원들에게 말한다. 아주 자신 있게. 조금 과장하자면 지역지회에서 일하기 잘했다는 생각마저 든달까. 숨씨 좋은 사장님 덕분에 뭘 먹을까 고민 따위 필요 없다. 하지 않는다. 그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찾을 뿐.

식당은 공장 사이 골목길에 소박하게 자리 잡았다. 걸보기에 여느 함바집과 다르지 않다. 반찬 종류가 조금 더 많다는 정도. 하지만 다르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정성 때문인 듯하다. 성의 있다. 무엇보다 음식 재료가 다르다.

단골손님인 조합원이 꽤 있다. 동양피스톤 김윤식 조합원은 “목요일은 치킨 나오는 날이잖아”라며 점심시간에 이곳을 찾는다. 직접 반죽하고 튀긴 닭이 맛있지만, 매콤 달달한 소스도 일품이다. 저마다의 최애 반찬이 하나씩 있다. 누군가는 제육볶음. 누군가는 보쌈고기. 나의 최애는 알타리다. 직접 만든다는 김치들이 다양하고 맛있다. 손성희 가레트모션코리아 분회장은 유독 다원식당을 애용한다. 회



사 식당 밥이 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되자, 다원식당을 추천했다. 여러 업체 시식 후 조합원 투표로 다원식당을 선정했다.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 찾는 식당이지만 여긴 특별하다. 평범함을 얽잡아보지 말자. 다원식당은 감히 함바집의 끝판왕이라 불릴만하다.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12-9 (다원식당)

이영숙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QR코드 활용꿀팁

코로나 19 세계 유행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QR코드'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QR코드로 출입 인증하셨죠? 그동안 내 QR코드를 찍히기만 했다면, 이제 내가 QR코드를 찍어봅시다. 카톡이랑 유튜브만 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는 방법]

- STEP 1**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후면 카메라로 설정합니다.
- STEP 2** 스마트폰 렌즈로 아래 QR코드를 비춥니다.
- STEP 3** 폰이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상단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 STEP 4** 알림을 누르면 QR코드 연결 링크가 열립니다.

2021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바지락>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입 모아 말합니다.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은 없어서 나눠드리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이제 스마트폰 속에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을 쏙.



인천지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인천 부평주안산업단지, 남동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에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임금과 노동시간, 법 위반 사례부터 인천 공단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바지락> 다시 보기

금속노조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를 못 받으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얼른 보세요. 그동안 발행한 <바지락>과 <이주바지락>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주변 이주노동자 동료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영어, 네팔어, 벵갈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한국어.

